세상이 아니라 천국이 종말로 치닫고 있다

(딤후3:1~9)

1.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2.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3.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4.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5.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6.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7.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8. 얀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 받은 자들이라
9.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세상이 아니라 천국이 종말로 치닫고 있다>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천국이 종말로 치닫고 있다'
세상은 어떤 모양이고 어떤 상태이든지 간에, 지금 종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언제인지 모르지마는 재림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은 종말로 치닫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체 어떤 의미에서 세상이 아니라 천국이 종말로 치닫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또 천국은, 종말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영원한 나라에요, 영원한 나라에 종말이 어디 있습니까?
종말은 문자 그대로 끝나가는 것이고 중단이 있는 것이고 결국 소멸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천국이 그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종말로 치닫고 있는 세상은 종말로 치닫고 있지 않다 그러고, 종말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천국은 종말로 치닫고 있다고 한 이 제목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 하는 때가 이르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말세에 고통 하는 때가 이르러'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등등.
꼭 인종지말자의 모습을 그려 놓은 것 같습니다.
'인종지말자'가 뭡니까? 인간 중에서 도저히 상종하기가 불가능한, 완전히 망가져 버린 인간, 이게 인종지말자에요.
근데 지금 오늘 2절부터 4절까지 그려 놓은 걸 보면, 인종지말자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인종지말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말이 그 의미를 보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다, 이거 뭐 사람들이 원래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새삼스러울 게 없잖아요?
그리고 4절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이것도 뭐 새삼스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이렇게 썼을까요?
그리고 5절에 너는 이런 사람들로부터 돌아서라.
아니 진작 돌아서지 않았습니까, 디모데나 교인들이 다.
여기서 사람들이라는 거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좋아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건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말할 필요도 없는 거지요, 원래 그러고 있었으니까.

자! 그러면 이 전체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선 말세가 뭡니까? 세상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의 상태를 보통 종말이고 말세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것만이 말세라고 말하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가 지금 생겨서 존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의 기간 전체가 사실은 말세의 기간입니다, 종말의 기간이라고 또 보는 거예요, 영적 의미상.

그럼 왜 그렇게 봅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거는, 적어도 그 복음을 받아들인 당사자에게서 볼 때는 세상이 끝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바라볼 때는, 이 세상은 끝나기 위해서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존재의 의미가, 끝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기 이전에는, 이 세상이 나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갖는 의미가 뭐였습니까?
어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 세상을 사는 의미는, 한 번뿐인 이 세상에서의 인생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건 예외가 없는 거예요.
꽃을 피우려다가 포기한 사람도 있고, 꽃을 피우되 작은 꽃을 피운 사람도 있고, 꽃을 피우기 위해 정진하고 있는 중인 사람도 있지마는, 어쨌든 인생의 의미는 인생의 꽃을 피우는 데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의미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꽃을 피우기 위해 사는 세상이 죽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끝나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사는 거예요, 이전의 세상이 죽어버리고.
그 세상을 한 마디로 하면 마음의 꽃을 피우는 세상입니다.
마음의 꽃은 어떻게 핍니까?
인생의 꽃은, 우리가 어마어마한 돈을 만날 때, 어마어마한 관직과 직위를 받을 때, 어마어마한 재능을 가지고 예술의 대가가 될 때, 어마어마한 지적능력으로 정말 학파를 거느릴만한 우두머리가 될 때, 인생의 꽃을 피우는 거 아닙니까?
뭐 꼭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정한 계획과 소원과 꿈이 있어서, 자그마한 가게 하나 얻어 가지고 그저 오순도순 우리가족 잘 살고 건강하게 아무 탈 없이 사는 것, 이게 인생의 꽃을 피우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의 의미가 어떻게 바뀌어 버렸냐 하면, 마음의 꽃을 피우게 됩니다.
십자가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죽고, 인생의 꽃을 피우며 살겠다고 했던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리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마음의 꽃이 피어납니다.
마음의 꽃이 피어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마음이 웃고 마음이 만족하고 마음이 기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이 세상의 삶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내 몸을 장갑처럼 끼시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삶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서,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될 수 있는 센세이셔널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빛도 이름도 없이 살다가 죽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노예로 살고 있어야 되는 상황도 주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갖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는 기준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내 마음의 꽃이 지지 않고 계속 피어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음에 꽃이 피고, 하나님으로 인한 천국으로 인한 마음에,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활짝 피어나고 있는가, 이 마음의 꽃이 피고 있는 상태로 살고 있는 동안에 하는 모든 행동은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세상에 더 바랄 게 없기 때문에.
이미 내 마음은 하나님으로 활짝 피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행동하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웃을 위한 사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는 복음을 어떤 제3자에게 전하게 된다는 것은, 그 제3자에 의해서 아직도 지속되고 있던 이전의 세상이 이제 끝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교회가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은 종말의 시점에 놓여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존속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에게 세상은 끝나 버리니까, 마지막 때로서 세상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심각해 졌어요.
이렇게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세상의 의미가, 인생의 꽃을 피워야 되는 무대로서의 세상의 의미가 죽어버리고 마음의 꽃이 피고 하나님의 활동 무대로 바뀌어야 되는데, 아니 이게 이렇게 죽어버려야 될 세상이 죽지를 않는 겁니다.
오히려 극성을 부리면서 어떤 상황까지 벌어지느냐?
복음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의 세상이 교회 안에까지 침투해서 완전히 교회를 식민지화 해버렸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사도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말세에 고통 하는 때가 이르러'라는 말을 씁니다.
'고통 하는'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의 원뜻을 그대로 풀이하면, '무시무시하게 위협적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 무시무시하게 위협적입니까?

예를 들어, 바벨론이 이제 남왕국 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초토화시켜 버릴 겁니다.
그리고 헬라의 왕 안티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하고 돼지피를 성전 벽에 바르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을 미리 아는 선지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위협적이겠습니까?
우리로 치면, 일제가 우리나라를 식민지화 하는 일을 감지하고 있는 선지자가 있었다 합시다,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세월호 사건 때문에, 안산에 있는 고등학교 예를 들어, 8반 9반 학생들은 한 반에 뭐 30여 명씩 있지 않았겠습니까? 합쳐서 70명이라 그러면, 8반9반 학생들 중에 살아남은 학생이 지금까지 3명이래요.
3명의 학생이 교실에 들어가 딱 앉아 있으면, 67명의 학생 친구들이 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지금, 아무개 아무개야 부르면서 같이 친하게 지내던 그 67명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게 바로 고통 하는 때라 그럴 때, 고통 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위협적입니다, 사도바울이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상황이 뭡니까, 왜 이렇게 무섭다고 하고 위협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교회 안에서 천국이 종말을 고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종말로 치닫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세상이 종말을 고해야 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 듣는 사람마다, 세상이 종말을 고하고 천국이 확장되어 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꾸준히 천국이 확장 되면서, 선택한 백성들이 자꾸자꾸 찾아져 내져, 정말 진도 앞바다에서 수색작업 하듯이, 그렇게 물에 빠져 있고 세상 바다에 빠져 있는 자들이 자꾸자꾸 건져내져야 되는데, 거꾸로 이 배 속으로 바다물이 들어오듯이, 종말이 고해져야 될 세상이, 극성을 부리고 살아 있으면서 교회까지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다 지배해 버렸습니다, 교회를 식민지화해버렸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예감하면서 지금 사도바울은, 그 옛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일제가 한국을 점령할 때, 6.25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그 모든 무시무시한 사건들을 감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의 상황을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교회가.
천국이 종말을 고하게 되는, 천국이 점점 더 종말로 치닫게 되는 상황을.

그럼 어떤 상황이 주어지기에 천국이 종말로 치닫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걸 한 마디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
얼추 다 아시지요? 그 의미를.
쉽게 예를 들면 간단할 거 같아요.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고 골리앗이 있습니다.
왜 골리앗이 문제가 됩니까? 왜 블레셋이 문제가 됩니까?
다윗이 거기 끼어들었어요, 다 벌벌 떨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고 하는 믿음은 사울 왕에게도 있고 이스라엘 군대에게도 있습니다.
근데 골리앗 앞에서, 블레셋 군대 앞에서 그 믿음이 살아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선민이라는 모양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도 압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것도 압니다, 이게 다 경건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걸 알면서도, 골리앗 앞에서 어깨를 펴지 못합니다, 골리앗이 무엇이기에.
인간 세상에서는 대단합니다, 그러나 골리앗이 대단해 보이는 인간 세상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면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종말을 고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재벌총수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보여야 되고, 대통령을 한다는 게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한다는 게 대단한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이 끝나버려야 됩니다.
재벌총수가 힘이 막강하다고 느끼면서 부러워하는 그런 세상이 끝나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끝나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의 장대함이 그대로 살아서,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관점이 그대로 살아서, 입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만군의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뚫고 들어가 버려서, 이 세상이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를 완전히 식민지화해버렸습니다.
그들에게서 천국이 끝나 버린 거예요.
하늘나라가 끝나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위엄이 끝나 버렸습니다.
근데 다윗이라는 청년 하나가 끼어들면서 그 현장에서 만군의 주 여호와를 부르고 찾고 믿고 뛰어 나갑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의지해서 내게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네가 모독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너에게 나간다.
이게 경건의 능력인 거예요.
돌로 골리앗을 죽인 게 경건의 능력이 아니라, 그건 경건의 능력에 따른 부수적인 결과고, 경

건의 능력은 그 골리앗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라이브 연결해 내는 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실제 살아계신 분으로 연결하는 것, 이게 경건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무서워서 도망간 사람입니다.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오순절을 지나가면서 어떻게 변했습니까?
산헤드린 공회가 잡아 가지고, 예수님 전한다고 매로 팼습니다.
죽도록 팬 다음에, 너 절대로 예수라는 사람 전하지 말라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이 한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을 듣는 게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하나님을 현장에서 라이브로 연결하는 겁니다.
직장에서 사장님 앞에서 서 있을 때, 직장에서 장사할 때 손님 앞에서 물건 팔 때, 하나님을 라이브로 연결하는 게 이게 바로 경건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무슨 기적을 일으키고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게 능력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이 세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 되는 것, 그럼으로써 이전의 세상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세상이 종말을 고하게 되는 것, 그래서 내가 가게 되는 곳곳마다 세상은 죽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에서 이전의 세상의 의미가 죽어 버리고 다른 세상이 열리는, 다른 세상이 거기에 실현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거꾸로 돼 버렸어요.
교회가 뭡니까? 예배당에 모여 있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김 집사님 직장에 있고 이 집사님 가정에 있고 박 집사님 시장에 있어도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이 집사님, 김 집사님, 박 집사님 마음속으로 이 세상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식민지화돼버린 거지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이렇게 하고 시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까?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복음 이전의 세상에서의 의미대로 자기를 사랑한다는 얘기에요.
이 세상에서의 자기가 누구입니까?
육체와 마음이 강력 접착제로 붙여 놓은 것처럼 붙어버린 상태로, 나라고 생각하는 이 자기를 말합니다.

몸과 붙어 있는, 이 세상에서 앞집 박 씨 아저씨와 나를 구분해 주는 그 경계가 몸 아닙니까? 마음이 몸에 찰싹 달라붙어 가지고 그걸 나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이 '나'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나'로 사는 세상이 십자가에서 끝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어야 될 마음과 육체가 접착제를 통해서 붙어 있는 것처럼, '나'를 이루고 살던 그 '나'가 죽어야 되는데, 그걸 살려냅니다, 십자가를 치워 버립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는 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를 어떻게 이용하나 하면, 그 내 마음과 내 육체가 강력 접착제로 붙어 있는 그 상태에서, '이제까지 진 모든 죄를 용서해 주고, 앞으로 그 상태로 계속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줄 것이다'라고 말해버린 다음에, 돈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래도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모~든 이단들의 귀결이 어디입니까? 돈이에요.
문 선명 씨 통일교 세워 놓고 죽었습니다, 그 나머지가 뭐에요? 어마어마한 재산과 기업들입니다.
결국 자식들이 그걸 물려받는 거예요.
뭐 이단적이라고는 하지만 사상을 발전시키는 이런 거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요즘 세월호, 구원파의 우두머리였던 아무개 아무개, 지금 그 사람들에게 남은 게 결론이 뭡니까? 수천 억 재산이에요.
그것도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 나와서 책임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으로 돈을 모은 겁니다.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면 정통교회라고 하는 교회 중에, 대형교회들 아니면 목사님들 마음속에, 결론이 뭡니까? 내가 교회를 개척해서 크~게 세웠어요, 그 크~게 세운 것에 대한 특권이 뭡니까? 결국 돈이에요,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결국 돈으로 다 무너져 내려가요.
날마다 십자가를 전하지 않으면, 새벽기도 때도 날마다, 주일예배 때도 날마다, 주일 저녁때도 수요일 예배 때도, 날마다 십자가를 전하고 십자가로 생활화하지 않으면, 돈에 안 넘어갈 장사가 없는 겁니다, 돈에 안 넘어갈 장사가 없어요.
어느 책 같은 거나 영화 같은 거 보면, 바티칸도 돈을 따라 움직입니다, 누가 돈을 움직일 수 있는 자리에 서느냐 갖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소용없어요, 소용없다고요.
십자가를 생활화하지 않고, 몸과 마음이 강력 접착제로 붙어져 있는 상태인 그 나를 사랑하면서, 여전히 인생의 꽃을 피우고 싶어 하고 있는 한, 그러한 자기 사랑의 첫 번째 갖추어야 될

장비가 뭡니까? 돈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할 때, 마음과 육체가 붙어 있는 상태의 나를 사랑할 때에, 첫 번째 갖춰야 될 장비가 바로 돈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자랑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자랑.
사람들 앞에서 나를 드러내는 게 자랑 아닙니까?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 주고, 교만과 비방이 왜 따라 나옵니까?
교만은 나를 사람들 앞에서 높이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데 올라서 보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는 게 교만이고, 비방은 내가 높은 데 올라가기 힘드니까 다른 사람을 비방해서 깎아내리는 겁니다.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
돈이 있으면 높은 데 올라설 수 있고, 다른 사람 함부로 비방해도 괜찮고, 부모를 거역한다, 그래요 부모를 왜 거역합니까? 내 위에 누가 있는 걸 본성적으로 원치 않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부모님은 내 위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다, 감사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 위에 계신 분에 의해 주어지고 있는 현실생활에 만족이 없어요, 내가 제일 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까지도 종으로 부리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하나님까지도 종으로 부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우스갯소리이지만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벌써 한 20~30년 지난 거 같아요, 이 얘기를 들은 지가.

뭐 진짜 있었던 얘기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영국 성공회 대주교님께서 웨스트민스터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더래요, 아무도 없었는데.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 주면 좋겠느냐?' 깜짝 놀라서 이 주교님이 눈을 떴습니다.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 다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또 그 음성이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 왜 자꾸 눈 감고 기도만 하냐? 내가 물어보면 대답하면 되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주교님이 물어본 거예요, 사방을 둘레거리면서,
오늘 고통 하는 때 무시무시하게 위협적이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오싹하고 아주 그냥

소름이 돋지 않았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주교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이놈아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 그랬더니 심장마비로 죽었대요.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그랬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만들어 낸 얘기인지도 모르지만, 너무나 실감나는 얘기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면 심장마비로 죽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 노래를 부르고 살면서.

왜 그렇습니까? 진짜 하나님 만나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왜 진짜 하나님 못 만납니까? 십자가를 생활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일평생 연구를 하고, 하나님에 대한 책을 산처럼 쌓아둘 정도로 만들어내고 지어내도 하나님 못 만납니다.
주님의 연쇄사건,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따라서 마음이 가게 되지 않는 한, 못 만납니다.
그리고 현실 속에서, 시장에서 직장에서 그 하나님과 라이브로 연결된 상태에서 사는 경건의 상태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생활화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죽어야 될 사람들이 십자가를 치워버리고 세상에서 인생의 꽃을 피우려고 삽니다, 이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살면 결국 교회는 세상에 의해서 식민지화돼 버리고, 교인들의 마음을 통해서 이 세상으로 확장되어가야 될 천국은, 종말을 고하게 되는 겁니다.
끝이 나야 될 세상은 확장이 되고, 확장되어야 될 천국은 종말을 고하는 현실.
지금 교회에 이 말씀과 상황이 현실적으로 많이 멉니까?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세상에 의해 내 마음도 교회도 식민지화 되어가고 있는 이 현실을, 주님의 십자가를 생활화함을 통하여 극복하게 하시고 천국이 확장되어가는 역전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